

# 숨은 매력 알리는 '마을 관광두레사업' 눈길

## 전남도 지역관광 활성화 위해 홍보마케팅

### 마을 주민 주도 지역 고유 관광자원 발굴

전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를 겪고 있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주민 주도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15일 2회에 걸쳐 전남도 유튜브 채널인 ' 으뜸전남튜브'를 통해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과 주민사업체를 홍보했다.

방송은 지역별 주민사업체를 실시간 라이브로 연결해 현장감 있게 소개했으며, 한우 경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여수의 여행 주민사업체는 여순특별법 제정으로 관심이 높아진 여순사건을 주제로 하는 여수 10·19 투어 코스를 선보여 의미를 더했다.

전남 관광두레 SNS 서포터즈도

난 2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총 5명으로 구성된 SNS 서포터즈는 전남 관광두레 사업과 주민사업체 체험 후기 콘텐츠 등을 제작해 개인 SNS에 소개하는 등 전남의 숨은 매력을 알리고 있다.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앞으로 주민사업체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멘토링, 파일럿 사업 등을 꾸준히 지원할 방침이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은 주민이 지역 고유의 관광자원을 발굴해 그 지역만의

특색있는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라며 "주민사업체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노력이 빛을 발하도록 지원해 전남관광 활성화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공모에 선정돼 3년 간 국도비 15억원을 들여 지역 인력 양성교육 프로그램, 주민사업체 발굴 및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개 시·군에서 26개 주민사업체를 관리하고 있다.

김정환기자



**김영록 지사, 전남 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도청을 방문한 조정식, 우원식, 정성호,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유치 등 지역 현안에 대해 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 비축농산물 안전성 aT가 맞는다... '전 항목' 검사기관 지정

### 중금속 이어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기관 추가 지정 받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가 정부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확대 지정을 통해 공신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

aT는 2019년 정부로부터 농산물의 중금속 분석이 가능한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잔류농약' 항목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받았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aT는 농산물 관련 주요 검사항목 모두를 분석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돋움했다.

aT의 지정검사 기관 확대로 수입 비축농산물 안전성 검사 방식에도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기존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국외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 성적서를 징구하고, 식약처 통관검사를 거쳐 국내에 반입하는 절차로 이뤄졌지만, 올해부터는 공급 예정 물품의 시료를 사전에 aT 실험실에서 받아 잔류농약 등을 검사하도록 개선했다.

이러한 조치는 aT 자체 검사에 대한 공신력을 높여줌으로써 '사전검사 →국외검사 →통관검사'로 이어지는 '3단계 안전성 검사' 체계의 정착과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aT는 정부 비축농산물 수급관리기관으로서 국민 식생활과 직결되

는 '쌀·콩·마늘·양파·배추' 등 비축농산물 약 70만톤을 연간 수매·수입해 국내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또 비축농산물의 전문적인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 2016년에는 자체 실험실을 구축했다.

aT 실험실은 매년 권위 있는 국제 시험분석 숙련도 시험(FAPAS)에 참가해 우수한 성적을 거둬왔으며 탁월한 분석 능력과 신뢰를 인정받고 있다.

김춘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은 "농산물 안전성 검사기관 잔류농약 추가지정을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서 국민의 식생활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전남도 부동산 특별조치법 적극행정에 306억원 감면

전남도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제도를 시행해 도민에게 306억원 상당의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7월 광주전남지방법무사회와 부동산 특별조치법 보증수수료 감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자격보증인의 보증에 따른 보수료를 기존 450만원에서 70만원까지 낮추고, 등기수수료도 50%까지 감면해 신청인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였다.

1년이 지난 7월 현재까지 2만9470필지의 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해 처리 중이며, 그 중 8042필지의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수수료 감면 차액 380만원을 현재까지 확인서 발급이 완료된 8042건에 적용하면 306억원 상당이 감면됐다.

시·군별로 고흥 3622필지, 진도 2669필지, 순천 2452필지, 보성 2169필지, 완도 1824필지 순으로 많다.

이번 부동산 특조법은 과거 3차례 시행했던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비해 절차가 복잡해 신청이 다소 저조한 실정이다.

하위신청으로 인한 폐단을 줄이기 위해 보증인을 5명으로 하고, 그 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보증인을 위촉하게 하는 등 신청요건을 보다 강화했기 때문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특조법의 시행 효과를 높여줄 것이라며, 국회 등을 직접 방문해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법무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 김택영 기자

## 총장로4·5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2차 약정식

광주 동구는 27일 3팀의 청년 창업자와 빈집 소유주 간의 '총장로4·5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 2차 약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장로4·5가 빈집 청년창업 채움 프로젝트는 빈집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마을과 상생할 수 있는 청년창업을 지원, 청년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고자 전역 구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동구는 이번 2차 약정식을 계기로 3팀의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8월부터 창업 공간 리모델링비, 임차료, 재료비·상품개발비 등 초기 창업자금(최대 1천3백여만 원)을 비롯해 맞춤형 교육·컨설팅, 홍보 마케팅, 금융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서구,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활성화

광주 서구는 소상공인 영업장을 찾은 시민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공유서가, 책 읽는 가게'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책 읽는 가게'는 동네 가게에서 시민들이 틈틈이 책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생활밀착형 도서관 서비스다. 현재 카페와 병·의원 등 총 5곳을 '책 읽는 가게'로 선정, '공유서가'를 설치했다. 또 현판과 북 큐레이션 카드 등 다양한 독서정보 서비스를 제공한다.

## 남구, 유명 화가들 '작품 속 숨은 이야기' 배운다

광주 남구는 세계적인 명성을 쌓은 서양화가 및 남도 화가의 작품 속에 담긴 숨은 이야기를 배우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수강생을 모집한다.

27일 남구 청소년도서관에 따르면 인문학 프로그램인 '그림 속 숨은 이야기 찾기' 수강생 모집이 선착순으로 진행되고 있다.

모집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성인 30명이다.

남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lib.namgu.gwangju.kr) 또는 전화(☎ 607-2543), 남구 청소년도서관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오는 8월 17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달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총 10회에 걸쳐 무료로 운영된다.

##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본격화...11월 중 등기

광주 북구가 공공시설 관리·운영 등 기존 민간위탁 업무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출자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본격화 한다.

광주 북구는 27일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의원·민간 전문가와 함께 용역 결과 내용을 검증·심의했다.

이날 보고회를 통해 용역 결과가 타당성·적정성을 갖췄다고 결론 내리고 차질 없이 공단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공단 설립 취지 배경은 기존 민간업체에 관리·운영을 맡긴 시설 또는 위탁 사무를 인수해 인건비 등 소요 예산을 절감하고, 오는 2022년 말이면 대부분 완공되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 광산구, 골목상권 소상공인 배달업 지원

광주 광산구는 골목상권 소상공인이 배달을 시작하도록 지원하는 '사장님! 배달 뉴스타트 지원사업' 참여 점포를 다음달 25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사장님! 배달 뉴스타트 지원사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필수 영업 전략이 된 배달 서비스를 아직 시작하지 않은 소상공인의 온라인 배달업 진입을 돕는 것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광산구는 총 10개 점포를 모집해 ▲현장방문 컨설팅 2회(배달업 진입 지원, 배달 메뉴 세트 구성·제안) ▲점포별 배달용 CI 스티커 제작 ▲품평회 통한 점포별 교차 벤치마킹 기회 등을 제공한다.

임형택기자

www.nhis.or.kr

**"건강보험, 월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에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구분	고소득층	4분위	3분위	2분위	저소득층
급여비	240,833원	125,531원	79,147원	48,103원	26,697원
비율	1.1배	1.7배	2.1배	2.7배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한국인문진흥재단  
Korea Photo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여가는 퇴근 이후에!  
생활 속의 워라밸 실천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 행복해집니다.

국민 이매뉴얼에서 제안한 슬로리듬입니다.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